

협동조합과 빈곤 감소: 문헌 검토

Cooperatives and Poverty Reduction: A Literature Review

NANA AFRANAA KWAPONG1 AND MARKUS HANISCH. 2013

번역: 우연경 청년활동가

초록

실무자와 학계에서 양쪽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이 빈곤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키고,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권을 갖도록 촉진하고, 보호를 개선하는 제도의 한 형태라는 점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모델이 빈곤을 줄일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협동조합이 빈곤을 줄이는 잠재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의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다. 이 주장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발견했고, 모두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더 나아가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를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키워드: 협동조합, 빈곤, 문헌검토

소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몇몇 조사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이 기회를 제공하고, 권한 부여를 촉진하며, 보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대부분의 빈곤 문제의 대부분의 측면을 충족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도상국에서 빈곤과 배제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극빈층에 대한 협동조합의 영향에 대해서는 자주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뮌크너(Münkner)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에 투자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그들이 집단행동의 편익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왔다.

협동조합 모델을 다루는 문헌은 빈곤 퇴치를 위한 협동조합의 능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근본적 관점(Fundamental perspective)을 고수하는 일부 저자들은 협동조합이 자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좀 더 온건적인 관점(Moderate perspective)을 채택한 저자들은 협동조합은 회원들의 혜택에 중점을 가진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이며,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의 원래 목적이 빈곤퇴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협동조합 비즈니스 활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세 번째 그룹의 저자들은 균형적인 관점(Balanced perspective)을 취하고, 협동조합이 지닌 가치와 원칙을 잘 지키고 특정한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 그룹의 저자들은 다소 낙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경

제적인 기회를 파악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며, 개인적인 위험을 집단적으로 전환시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보를 제공한다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저저들과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의 빈곤 감소를 위한 잠재적인 역할에 대한 논쟁을 재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또한 협동조합이 빈곤 문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힌다. 이는 협동조합이 주는 이점의 주요 특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빈곤 퇴치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의 정보는 협동조합이 개발 의제로 돌아 올 시점에 기여할 것이다(This paper contributes knowledge at a point in time when cooperatives are back on the development agenda). UN은 가치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로써 협동조합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했다.

이 논문은 협동조합 개발과 빈곤 퇴치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이 문헌 검토는 포괄적인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 및 빈곤 퇴치에 대한 모든 문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빈곤 퇴치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 문헌만 검토한다. 검토는 출판된 문헌 중심으로 한다. 다음 섹션은 협동조합과 다른 유형의 조직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한 협동조합의 잠재력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은 사용자 소유권, 사용자 제어 및 사용자 혜택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이다:

-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가 협동조합 조직을 소유하므로 협동조합은 사용자가 소유합니다.
- 협동조합은 서비스 사용자가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통제자가 같습니다.
-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그 이익이 사용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사용자-이익 조직이다, 즉, 개인은 개인의 사용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는다(후원-patronage).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는 협동조합 및 생산자조직협회(연방 혹은 2차 협동조합)를 포함한다. 우리의 연구는 협동조합과 협력적으로 조직된 생산자 조직(국가협동조합이나 사회주의 생산자 협동조합이 아닌)에 중점을 둔다.

국제 협동조합 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협동조합은“공동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합된 자치단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협동조합이 사회 문화적 책임을 지닌 경제적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ICA는 협동조합이 정부 통제에서 독립적이며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할 것을 기대한다. 멤버십은 자발적이라서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다. 이런 기능은 협동 농장 또는 공동체 및 협동조합과 빈곤 퇴치 117 지구 협의회(Cooperatives and Poverty Reduction 117 district associations)와는 다른 형태의 조직임을 나타낸다. 이런 조직들은 회원 자격이 지리적 위치나 직업과 관련되거나 일부 회원은 비협회(Non-association)를 선호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회원 스스로 정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협동조합 회원은 1인 1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잔여 비용

이나 이익 분배를 결정할 권한을 개인의 자본금의 양에 의존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회원의 투자나 소유 지분이 아닌 사용에 비례하여 잉여 수익(비용과 투자를 초과하는 소득)을 회원들에게 돌려준다. 협동조합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고품질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제품에 가치를 부과할 때, 이런 수입은 사용에 비례하여 회원에게 되돌아간다(후원). 협동조합이 없다면, 이런 수입은 중개인이나 가공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빈곤에 대한 이해

다양한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설명하였고, 용어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리스터(Lister)에 따르면 빈곤을 어떻게 정의내리는 지는 설명과 결부되고, 해결책을 암시하는 정치적, 정책적, 학술적 논쟁에 대한 개념에 결정적이다. 부스(Booth, 1982)와 라운트리(Rowntree, 1901)의 선구자적인 연구는 빈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부스와 라운트리는 모두 빈곤을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정의된 절대적인 최소한보다 더 적게 갖은 것으로 정의한다. 타운센드(Townsend, 1979)은 빈곤을 생계적인 필요에만 국한하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한 정의를 제시한다. 그는 빈곤을 적은 자원으로 인해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자원을 기초로 한 빈곤에 대한 정의는 “하루에 1달러”라는 정의에 의한 결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비물질적인 요소는 포함하지 않고 사회의 참여나 소비가 재정적 자원에 대한 명령에 의해 결정되는 삶의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비난 받아 왔다.

센(Sen, 1993)은 빈곤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의 능력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안적인 정의를 제시했다. 누스바움과 센에 의해 개발된 능력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은 삶을 “존재와 활동”으로 보고, 이를 가치 있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을 토대로 삶의 질을 평가한다. 그들은 기능이란 개인의 상태의 일부, 특히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낸다고 정의 내린다. 센은 소득 그 자체로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소득은 개인들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그들의 기능을 허용할 때 가치 있게 된다.

유엔은 개발 계획(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광범위하게 이 접근법을 따른다.

... 빈곤은 인간 발달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과 기회의 거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길고, 건강하며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 존엄성, 자존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삶에서 소중한 것을 즐기는 것. 그러므로 인간 빈곤은 소득의 부족 그 이상을 들여다본다. 소득은 인간의 삶의 총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핍의 총합이 될 수 없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의 개발 원조위원회 (DAC)는 웰빙과 빈곤의 상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빈곤의 핵심적인 차원과 성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 사이의 인과 관계를 포함한다. 이것은 보호적인 경제, 정치, 사회문화, 인간,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빈곤의 핵심적 요소를 파악한다.

세계은행은 빈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섹의 능력 접근을 인정하지만, 취약함, 위험에 대한 노출, 발언권의 부재(Voicelessness)와 무력감(Powerlessness)등 인간 결핍의 형태를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세계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을 기반으로 빈곤에 대한 정의를 제안한다. 즉, “가난한 것은 굶주리고, 피난처와 의복이 부족하고, 병들었지만 돌보지 못하고, 문맹이며,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은 이런 것들 이상이다“. 세계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이 강조한 다음과 같은 빈곤의 이유를 파악했다. a)소득과 부족과 기본적인 필수품의 부족, b)발언권의 부재와 무력감 c)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없는 능력의 부족과 관련된 취약성. 빈곤 퇴치를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눈에 띄는 세가지의 주요 정책적인 요소들이 있다.

- 1) 인간 발달을 위한 기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장려
- 2) 권한 부여 촉진
- 3) 보장 강화

만약에 협동조합이 빈곤 퇴치에 기여한다면, 이러한 전략들과 협동조합과 조직의 활동의 주요한 영역에서의 연결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빈곤 퇴치를 위한 협동조합의 잠재력에 대한 토론을 제시할 것이다.

빈곤 감소를 위한 협동조합의 잠재력에 관한 논쟁

협동조합이 빈곤 감소에 잠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무엇인가? 협동조합과 빈곤 감소의 관계에 관한 많은 논쟁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과 빈곤 감소의 관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번 섹션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진화해 온 빈곤과 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4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 근본적 관점(Fundamental perspective)
- 온건적 관점(Moderate perspective)
- 균형적인 관점(Balanced perspective)
- 낙관적 관점(Optimistic perspective)

근본적 관점(Fundamental perspective):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의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여 등장했다. The Rochdale Pioneers, Friedrich Wilhelm Raiffeisen과 Hermann Schulze-Delitzsch이 일부 초기 협동조합 모델 지도자이다. 쿡과 버레스에 따르면 로버트 오언, 찰스 퍼리어, 프레드릭 라이파이젠, 허먼 슐체델리치, 로치데일 조합과 다른 많은 이들이 “경제적 정당화”를 후원자들에게 Market clearing(경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의 공급이 수요와 동일하므로 남은 공급이나 수요가 없는 과정) 집단행동을 받아들이도록 동기부여 하는 주요 추진 요소로 기록했다.

협동조합이 일부 선진국에서 상당한 성공을 기록함에 따라 협동조합 모델은 개발도상국에서 재현되었다. 아프리카에서 협동조합은 초기에 현금 작물 생산과 마케팅 장려를 통

한 전통경제 근대화를 위해 식민지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협동조합은 국가 경제 개발의 도구이자 전통경제를 현대화하는 수단으로 간주 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원칙인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회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다른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회원이 되는 것은 의무적이었고, 특정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폴렛(Pollet)과 데벨테르(Develtere)가 말했듯이, “가입은 수단적, 기회주의적, 그리고 수동적”이었다.

Table 1: 빈곤 감소를 위한 협동조합의 잠재력에 대한 관점

관점	주장	저자
근본적 관점 (Fundamental perspective)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	Hussi et al., 1993; UNRISD 1969; Holmén, 1990; Schirber, 1945; Thorp et al., 2005
온건적 관점 (Moderate perspective)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사업으로 주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빈곤층에 대한 의무는 없다.	Laidlaw, 1980; Münkner, 1976; UNRISD, 1969,1975; DFID, 2005; Holmén, 1990; Birchall and Simmons, 2008; Braverman et al., 1991;
균형적 관점 (Balanced perspective)	협동조합은 그들의 가치와 원칙이 진정으로 존중되고, 특정 전제 조건이 충족 된다면 빈곤을 줄일 잠재력이 있다.	Hussi et al., 1993; Holmén, 1990; ICA/ILO, 2005; Satgar and Williams, 2008; Pollet, 2009; Hunter, 1981; Lele, 1981,1975
낙관적 관점 (Optimistic perspective)	협동조합은 새천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과 세계화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빈곤의 모든 차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Wanyama et al., 2008; Simmons and Birchall 2008; Develtere et al., 2008; Bibby and Shaw, 2005; Birchall, 2004, 2003; Markell, 2004; Stiglitz, 2004; Pollet and Develtere, 2004; Parnell, 2001; Spear, 2002; Vicari, 2008; OCDC, 2007

초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협동조합이 개방되어 있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며 적은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도 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게다가 협동조합이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빈곤층에게도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창출했기 때문에 국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협동조합이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식민지 시대 이후에도 협동 모델은 정부 보조 신용 계획 및 마케팅 프로그램, 특히 돈벌이 작물(cash crops)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이러한 협동조합을 면밀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여 회원이 통제하는 본질을 왜곡시키고, 회원들의 참여를 저하시켰다. 정부는 종종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주요 관리들을 임명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부패로 이어졌다. 정부 기관은 농작물을 외상으로 사들이고 정부가 고정 시켜 놓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그 값을 지불하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작물 당국은 사실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인수했다. 정부의 가격 및 시장 규제로 인해 협동조합은 상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연구자들은 협동조합이 예상했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고통 받게 했고 정부에 의해 심하게 통제되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효율적이지 않고(회원수의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약했으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운영과 중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평등성을 창출하지 못하고, 빈부격차를 더 넓힌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 협동조합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었던 곳에서는 회원 중에서 극소수만이 혜택을 보았고, 그들의 대다수는 엘리트였다. 반면에 일반 평민, 특히 소외 계층은 협동조합 회원으로써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관료적인 방식으로 인한 장애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의 결여되고 민주주의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협동조합은 회원이 소유하고 그들의 혜택에 목표를 두었다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협동조합에 관한 많은 논쟁은 1967년과 1971년 사이에 실시된 유엔사회개발연구소(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UNRISD)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12개국 총 3개의 사례를 종합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개발도상국지역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행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지역 협동조합의 채택과 같은 지역 주민들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는 지역 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기관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 제 127 호는 개발도상국에 중점을 둔 협동조합 및 국제 개발의 역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기대할 점을 강조하여 개발 촉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더 많은 논쟁의 토대를 마련했다

요약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개방적인 회원 시스템(open membership)을 가지며, 개인회원으로부터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경제적 결과를 공정하게 공유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동적인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혼합된 회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진 자의 부의 재분배로 인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혼합된 회원 시스템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진 사람에 비해 동등한 목소리를 내거나 적절히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룹 안의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그것은 비용이 더 발생한다. 정부는 시골 지역의 진흥을 위한 주요 수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장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의 과거 경험은 정부가 협동조합을 장려했을 때, 그들은 통제나 감독당하고 결국 붕괴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건적 관점: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사업으로 주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빈곤층에 대한 의무는 없다.

협동조합이 자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몇몇 저자들로 도전 받고 있다. 그들은 협동조합은 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이 있는 사람 중심의 사업이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지만, 과정에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이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홀멘은 협동조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가정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많은 개발 문제와 적절한 수단 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한다. 시몬스와 버첼은 또한 “협동조합은 성장과 형평성을 창출하는 것이 원칙 중의 하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부당하게 비난받았다”고 주장했다.

원크너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실제로 가난한 사람과 극빈자들을 구별한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현금이나 일종의 일정한 가처분 소득으로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업을 유지하며 예기치 않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생활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올리지만, 저축을 할 수는 없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고, 그들의 모든 수입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므로 적은 양의 돈도 저축할 수 없다. 네 번째 그룹인 극빈층은 최저 생계비 이하로 벌거나 아예 수입이 없고,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원크너는 협동조합이 빈곤층을 돕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며 그러한 주장은 협동조합 조직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그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의 개념은 거의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부유한 부자와 실제로 가난한 자 사이에 협동조합이 가난한 가정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간 선"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혜택을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 구조와 프로세스가 있어야 함을 설명한다.

따라서 온건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은 빈곤층이 협동조합에서 배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 빈곤층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및 다른 형태의 조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참여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그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균형적 관점 (Balanced perspective): 협동조합은 그들의 가치와 원칙이 진정으로 존중되고, 특정 전제 조건이 충족 된다면 빈곤을 줄일 잠재력이 있다.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은 협동조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동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근본적 관점과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적이고 회원들의 혜택에 중점을 가지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온건적 관점 사이에서 균형적인 견해를 제공한다. 균형적 관점의 지지자들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진정으로 존중되고 특정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빈곤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폴렛은 협동조합주의(cooperativism)가 개발 모델로써 명확한 목표 그룹, 실행 가능한 매커니즘, 그리고 개발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기반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새트거와 윌리엄스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 맞는 개입으로 보완된 성공적 협동조합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제조건은 지속 가능서, 결속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구축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학습과 지도, 혁신, 적절한 거버넌스, 정보 및 정보 기술이 포함한다. 협동조합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수단이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은 협동조합이 회원들은 대안적인 사장과 연결시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위해 일하고, 평행적인 협동 경제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의 구조적인 힘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렐레는 협동조합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시장 정보, 규제 기관, 기술, 그리고 상품, 자본 및 관리를 위한 가격책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퍼넬은 성공적인 협동조합 개발을 위해서는 특정한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공, 채용에 대한 유능한 멘토의 가용성, 교육 및 개발, 재정 원천 및 긍정적인 공공 정책 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다.

윈크너는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협동조합은 필요, 공동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사회적 응집력에 대응하여 그 아래에서 출현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가 명확히 이해되어져야 하고 강한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유용한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 틀, 명확한 정부 정책, 협동조합 조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에 유연한 사회구조와 같은 특정 외부 요인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후시 등은 유리한 정책과 입법 틀 내에서 경영 및 사업 활동에 부당한 제한 없이 협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회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와 같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량 구축은 약간의 외부의 도움으로 협동조합 스스로 해야 한다. 브래버맨 등은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분석에 대해 경고하는데 이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료 협동조합이 번성했던 다른 환경에 대한 추가 분석을 제안한다. 그들은 협동조합이 민간 기업가 또는 준국가기관과 같은 다른 기관들이 생존 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협동조합이 보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부 기관들은 협동조합이 독립적인 사업체로 발전할 잠재력이 없는 한 지원하지 않아야 하고, 지역 정치인들은 정치적 후원을

위해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낙관적 관점(Optimistic perspective): 협동조합은 새천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과 세계화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빈곤의 모든 차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활용 가능한 문헌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협동조합 개발을 촉진하는 조직들과 관련된 저자들에 의해 쓰였다. 버첼, 시몬스, 레이드로, 홀먼 및 다른 이들도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재조정에 대한 정책을 쓴 저자들이다. 새 천년의 도래와 함께 협동조합에 관한 논쟁은 협동조합의 빈곤 감소에서의 잠재적인 역할과 새천년목표에 중점을 둔다. 이 낙관적 관점을 가진 저자들은 협동조합이 빈곤 감소의 모든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완야마 등은 이 논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개인의 위험을 집단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상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2015년까지 극빈과 굶주림을 절반으로 줄이는 세계적인 노력에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믿어진다. 버첼은 협동조합이 빈곤을 퇴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다른 새천년발전목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대발 패러다임은 다양한 관계자, 분권화, 민영화, 지역 기업, 빈곤 감소, 특수화 및 전문화를 강조한다. 원크너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발전을 위한 잠재적으로 강력한 도구로 만드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고 그것이 그룹의 모든 회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빈곤 감소를 위해 참여 발전 방법으로 사용 될 때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져왔다. 완야마 등은 아프리카의 11개국에서 사례적 증거를 평가했고, 협동조합이 가난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을 같은 수입 창출 기회 안에서 통합함으로써 회원들의 자본 접근성을 증대함으로써 빈곤 퇴치와 불평등에 기여한다고 결론지었다. 버첼과 시몬스는 스리랑카와 탄자니아에서 협동조합을 연구했고, 협동조합이 신용에 대한 접근, 생산물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 빈곤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냈다. 원크너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 지원, 정부의 개입 성향,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제한 될 수 있다. 비비와 쏘우 또한 협동조합이 빈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지역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는 시골 지역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소규모 생산자에게 시장 접근, 신용 접근, 취약성 감소, 민주화 증진,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새천년발전목표 성취에 기여할 수 있다. 파넬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위기에 대응하고 완화 전략 지원할 잠재력이 있다. 협동조합은 고용을 창출하고, 대화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사회 보장 및 기타 사회 경제적 필요를 해결한다.

결론

이 보고서는 빈곤 퇴치를 위한 협동조합의 잠재력에 관한 실증적인 문헌을 검토했고, 네 가지 관점을 확인했다.

그 중의 한 그룹의 저자들은 협동조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동조합이 개방되어 있는 회원제를 갖고 있고, 적은 투자 자본을 요구하고, 경제적 수익은 평등하게 공유하는 한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본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은 온건적 관점의 지지자들에 의해 도전 받았다. 그들은 협동조합이 주로 회원의 혜택에 중점을 둔 사람 중심 사업이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지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협동조합에 포함되고 전적으로 참여하면 그들이 협동조합의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고 강조한다.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을 추구하는 세 번째 그룹의 연구자들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존중되고 특정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빈곤을 줄일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낙관적 관점을 고수하는 네 번째 그룹의 저자들은 협동조합이 빈곤의 모든 차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기구라고 주장하면서 새천년발전목표와 세계화의 과제 해결에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낙관적 관점의 지지자들은 협동조합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파악한다는 이점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의 위험을 집단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안정을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이유에서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네 가지 관점은 협동조합이 빈곤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협동조합의 원리와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에 주의를 주고 있다.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